

데스크시각



박진현  
제작극장·문화선임기자

‘시카고’ ‘발리 엘리엇’ ‘물랑루즈’ ‘금면왕조’... 평소 공연을 즐기는 애호 가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외국의 소문 난 브랜드 공연 이름이다. 뉴욕이나 런던을 여행하는 이들에게 브로드웨이의 ‘시카고’와 웨스트엔드의 ‘발리 엘리엇’는 놓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 뮤지컬’이다. 과거엔 유명 관광지를 수박 겉핥듯이 둘러보는 게 유행이었지만 요즘은 그 도시의 문화를 체험해 보는 ‘컨텐츠 관광’이 대세가 됐다.

중국 고대 신화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기를 주제로 한 베이징의 ‘금면왕조’(金面王朝)는 문화 관광의 성공 케이스다. 주야간 하루 두 차례 시내 중심가의 전용 공연장 ‘해피 밸리’에서 연중 열리는 공연은 매회 1000여 석의 좌석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

관광객 발길 붙잡는 ‘금면왕조’

무엇보다 탄탄한 스토리와 예술적 연출은 백미라 하겠다. 2008년 베이징을 립픽 개막식을 총지휘한 장에도 감독의 연출력과 무대 미술, 음향에 출연 배우 200여 명의 환상적인 조화가 객석을

브랜드 공연의 경제학

압도한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모세의 기적과 맞먹는 일명 홍수 신(scene, 장면)이다. 극의 사실감을 살리기 위해 360도 회전이 가능한 무대 위에서 500여 톤의 물이 실제로 휘몰아치는 장면은 관객들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한다.

지난 2011년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을 통해 세상에 나온 ‘투란도트’는 대구판 ‘금면왕조’쯤 된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푸치니의 동명 오페라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인데, 대구시와 DIMF 사무국이 중국 시장을 겨냥해 수년간 공들여 온 브랜드 공연이다. 극중에 차이 나풍의 음악을 삽입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 같은 환상적인 협업 덕분에 국내 외에서 통하는 히트 상품으로 떠오르며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외지에서 온 관객들은 저녁 공연이 끝난 후 대구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호텔이나 음식점의 매출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광주를 보면 아직도 체류형 관광의 불모지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현대 미술의 한바탕 축제인 광주비엔날레가 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등에서 빅 이벤트들을 개최하고 있지만, 밤늦게까지 관광객의 발길을 붙드는 상설 야간 콘텐츠가 부족하다. 때문에 미술관이나 전시장을 둘러본 외지인들이 관람을 마치고 ‘미련 없이’ 광주를 떠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광주시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지난 2011년 광주문화재단을 통해 9억 원을 투입한 ‘자스민 광주’를 필두로 2억5000여 만 원을 들인 ‘님을 위한 행진곡’과 ‘빛고을 아리랑’ 등을 무대에 올렸지만 완성도가 떨어져 결국 사장(死藏)되는 운명을 맞았다. 의욕만 앞선 나머지 오랜 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고 급조해 무대에 올린 탓이다.

문화 관광 로드맵 새로 짜야

문제는, 그럼에도 공연 콘텐츠를 관광과 연계시키는 정교한 전략과 (이를 지휘하는)전담 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2019 광주 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8월5-18일)를 겨냥한 문화 관광 대책 회의도 그랬다.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산하 문화정책관, 문화예술진흥과, 관광진흥과 관계자가 참석해 마스터즈대회 참가자를 공연장으로 끌어 들이는 콘텐츠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브랜드 공연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정작 어느 부서가 주체될 것인가에 대해선 모두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발을 빼느라 바빴다고 한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부대 행사인 마스터즈 대회는 200여 개국에서 1만 5000명의 수영 동호인이 참가하는 메가 이벤트다. 수영 선수들이 참가하는 본행사와는 달리 대부분 가족 단위로 여행을

겸해서 오는 데다 체류 기간도 최소 1-2주여서 실제 방문객은 등록자의 2-3배에 달한다. 역대 수영대회 개최지 가운데 흑자를 낸 도시들 역시 마스터즈참가자들의 문화 소비에 ‘웃을’ 수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문화관광을 꿈꾸는 광주로서 마스터즈 대회는 천금 같은 기회다.

최근 광주시는 서구 세계 광엑스포주제관을 브랜드 상설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해 광주를 대표하는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편의 ‘엘메이더’ 공연을 제작하려면 기획에서부터 제작까지 긴 호흡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위해선 배우는 물론 조명, 무대, 연출 등 인적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품질 공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문화전당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필수다.

‘자스민 광주’는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한 문화 속도전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준, 지역의 흑역사였다. 동시에 ‘메이더인 광주’의 감동을 담아낸 명작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작품성이 높아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 주기도 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예술의 도시 ‘광주다움’을 보여 주려면 내년 수영선수권대회의 개막에 맞춰 지금부터 문화 관광의 로드맵을 새로 짜야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미션은 예술, 축제, 관광의 시너지를 이클립트를 타워를 세우는 것이다.

/ jhpark@kwangju.co.kr

은펜칼럼



송민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매년 9월 18일이 되면 선양, 하얼빈, 창춘, 난징 등 중국 100여 개 도시에서 경보음을 울린다. 일본의 만주침략 전쟁을 기억하자는 의미의 사이렌이다. 일본이 만주를 침공한 1931년 9월 18일을 중국인들은 치욕으로 여긴다. 이렇듯 중국 내 항일 유적지 어느 곳을 가더라도 ‘국치를 잊지 말자’(勿忘國恥)라는 글귀를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떤가. 해마다 8·15 광복의 감정을 되새기는 사람은 많지만, 경술국치(庚戌國恥)를 제대로 아는 이가 이젠 드물다. 일제에 의해 주권을 빼앗겨 식민지로 전락한 치욕의 날이 1910년 8월 29일이다. 오늘이 바로 108번째 맞는 경술국치일이지만 달력, 수첩 어느 곳에도 특별한 날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진영

경술국치의 아픈 기억

논리에 집착해 ‘국치를 잊지 말자’는 역사의 본질과 교훈적 의미를 내팽개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지리산 구례 땅에 은거하던 한 선비가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소식을 듣고 절명시(絶命詩) 네 편을 남기고 자결하였다는 소문이 삼시간에 퍼졌다. 그러자 선비들은 그의 시를 너도나도 베껴 외었는데 그 한 구절을 보면 이렇하다. ‘금수도 슬피 울고 산하도 정그러니/ 무궁화 세상은 이미 땅에 버렸다네/ 가을 등불 아래서 책 덮고 회고해 보니/ 인간 세상 식자 노릇 참으로 어렵구나(황현의 절명시)

경남일보 주필이자 ‘시일야방성대곡’을 썼던 장지연이 매천 황현 선생의 절명시를 경남일보에 게재했다. 조선총독부 시(庚戌國恥)를 제대로 아는 이가 이젠 드물다. 일제에 의해 주권을 빼앗겨 식민지로 전락한 치욕의 날이 1910년 8월 29일이다. 오늘이 바로 108번째 맞는 경술국치일이지만 달력, 수첩 어느 곳에도 특별한 날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진영

사대부를 길렀으니, 이제 나라 망하는 날에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면 그 또한 애 통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박은식의 ‘한국통사’에 따르면, 우리의 주권을 일제에 빼앗긴 땅국을 한탄하며 목숨을 끊은 전국의 선비는 28명이다.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와 각 고을을 다스리던 360여 수령 가운데 명단에 포함된 현직은 금산군수 홍범식과 주 러시아 아공사 이범진 2명뿐이다.

그러가 망할 때 많은 충신이 두둔 등으로 들어가 끝까지 충절을 지켜 고려의 망국을 슬퍼했다. 그러나 반만년의 역사와 3000리 강토, 1500만 민중을 일제에 바친 조선의 황실과 내각은 지극히 평온한 모습이었다. 왕실 일가와 후손의 예우보장이라는 말을 믿고 순종은 조약을 성사시킨 ‘공로’로 이완용 내각에 훈장을 골고루 수여한다. 땅국의 책임을 져야 할 고관대작들이 무더기로 훈장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라가 강대국의 탐바구니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처했을 때 하나로 결속하지

못한 대가는 혹독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저들은 태평양전쟁까지 일으키고 술한 젊은이들을 학도 지원병과 강제 징용 등으로 전갱터와 군수 공장으로 내몰았다. 해방 이후 남북 분단이 치열한 동족상잔도 그 후유증이 아닌가.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한일병합 조약을 체결한 곳이 서울 남산 자락의 통감관저다. 이 땅에 식민 사회가 시작된 국치의 현장이다. 그 치욕의 터가 ‘위안부 기억의 터’라는 공원으로 3년 전 문을 열었다.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기리는 반전의 장소로 탈바꿈한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 247명의 이름과 증언을 새긴 ‘통국의 벽’에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이 아픈 역사가 잊혀지는 것이다.’라는 글귀가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단체 신재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광복절과 함께 국치일을 잊지 말자. 부끄러운 역사를 용기 있게 드러내고 지난날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성찰이 절실한 오늘이다.

기고



이동범  
수필가·전 광주교총회장

어제는 우연찮게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미소를 발견하였다. 횡단보도에서 한 예쁜 여자가 웃고 있는데 그녀의 시선에 따라 건너편을 보니 눈을 마주한 남자가 웃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 줄 선물을 들고 있으면서 눈을 떼지 않고 사랑의 미소를 보였다. 이미 연인 관계로 몸놀림이 흥분된 것 같았다.

잠시 스친 길거리 풍경이지만 갑자기 나는 기분이 좋았다.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까? 모든 것을 믿고 미소 지으며 달려가는 행복한 모습이 주위를 밝게 하였다. 세상을 향해 행복한 미소를 안고 가는 그 여인이 새삼 더 아름다워 보였다.

행복한 삶의 방정식

사랑으로 보내는 미소의 고소한 맛을 아는 그는 이제 행복한 일만 남을 것이다.

얼마 전 TV를 켜니 개그우먼 김미화가 초대 손님으로 출연하였다. 그는 33세의 발달 장애 아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그 차를 보고 ‘엄마 저 차는 내 것이야’라고 하였다. 그는 “왜 네 차라고 하니?”라고 물을 때 그는 ‘엄마 아빠가 죽으면 내 것이지 않아?’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저 애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아들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였다고 토로하였다. 비록 장애인이지만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것이다.

시골길을 지나다 보면 흔히 경운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루는 노인이 경운기를 운전하고 바로 뒤에는 부인 되신 노인께서 편하게 만든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 모습을 보게 되

었다. 이들은 옥망의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외제차, 대형차, 스포츠카 등 등 크고 화려한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보였다. 뭘 타느니보다 누구와 함께 타느냐가 행복의 척도가 아닌가 싶다. 그들을 보면서 ‘멋쟁이 고급차로 으스대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라면 소박해도 좋아요. 당신만을 위한 자리에도 삽니다.’라는 말을 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 노부부의 정경이 정말로 행복하게 보여서 마음이 흐뭇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고 했다. 그는 좋은 것, 즉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다. 앞에서 본 두 남녀, 발달 장애를 둔 부모, 경운기를 타고 간 노부부 모두가 함께 하면서 삶을 추구하는 행복이 아닐까?

부귀와 쾌락, 명예, 권력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을 뿐 궁극적인 행복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복이란 사소한 것 단순한 것

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행복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행복은 우리 삶에 대한 긍정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주위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거나 본인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면 긍정의 힘이 생겨서 벌써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기분에 살게 된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행복은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여야 한다. 행복은 바로 내 곁에 가까이 있다. 열심히 즐겁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기쁨 뿌듯하게 느껴오는 성취감과 행복감이 진정 가치있는 행복이라는 삶의 방정식을 찾게 되는 것이다.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의 꽃밭에서 속세의 욕망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영글게 하면 내 마음 속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社說

풀리지 않는 광주 현안 해결 전략 있거나 한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성 광주시장이 지난주 간부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광주의 시급한 여러 현안들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음을 말해 준다. 진전이 더딘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표적인 게 민선 6기에서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완성차 공장 설립이다. 16년간 찬반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도 있다. 여기에 민선 4기부터 추진된 ‘어등산관광단지 사업’도 진척이 없다.

광주형 일자리는 현재 고임금 구조인 자동차 업계의 임금 절반 수준으로 낮추되 교육·의료·복지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와의 협상 내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균열이 생긴 이후 광주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역시 단순히 찬반 및 건설 방식 논쟁으로 머물러면서 시민들에게 피로감만 주고 있다. 다양한 의견

수렴도 좋지만 도시철도 2호선이 동서측면 도시철도 1호선과 구도심 중심의 시내버스 등을 보완하면서 명실상부한 광주 공공(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어등산관광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참여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 채 민선 6기의 공모 내용과 같은 내용의 제2차 공모를 실시하기로 행정 불신만 쌓이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개발 인센티브 제공과 이익 일부의 공공 기여를 규정하는 제도적·전략적 보완이 시급하다.

광주시는 조만간 시정 혁신 방향을 정립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다양한 의견만 수렴하고 있을 것이냐는 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금은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 마련 및 강한 추진력 그리고 소통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더급해 보이는 시점이다.

윤곽 드러난 구간 경계 조정 이번에는 꼭

광주 지역 자치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구간(區界) 경계 조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주민 수가 가장 적은 동구의 인구를 최소 16만 명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는 그제 ‘자치구간 경계 조정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세 가지 개편 시안을 제시했다. 용역 팀은 구간 인구 편차를 현재 23.5%에서 전국 광역시 평균인 18.6% 이내로 조정하고 광주 지역 8개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시안은 ‘소폭 조정’으로 북구의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이 경우 동구 인구는 현재 9만 6000명에서 16만 3000명으로, 북구는 44만 3000명에서 37만 6000명으로 조정된다. 두 번째는 ‘중폭 조정’으로 첫 번째 시안에 더해 광

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안이다. ‘대폭 조정’이 이뤄지는 세 번째 안은 전체 자치구를 부분 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인구는 동구 20만 5727명, 서구 36만 5775명, 남구 25만 9888명, 북구 40만 958명, 광산구 25만 2701명 등으로 배분된다.

오는 10월 최종 개편안이 제시될 이번 경계 조정은 날로 심화하는 도심 공동화를 막고 구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동구 인구는 북구와 광산구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구간 경계 조정이 추진됐지만 정지권의 이해 다툼과 주민 반발로 흐지부지됐다.

이번만큼은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광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들에게 차별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한 달에 용돈을 10만 원 받는 아이가 있다. 부모는 상벌제를 적용해 용돈을 주고 있다. 아이는 6월에 친구와 다녔다는 이유로 용돈이 2만 원 깎였고 7월에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적발돼 1만 원이 추가로 깎였다. 낙담한 아이는 마음을 다잡아 잡다 쓰레기를 버리고 야배 구두를 닦아 8월에는 전달보다 2만 원 늘어난 9만 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3개월 동안 이 아이의 용돈은 얼마나 줄었을까. 정답은 6만 원이다. 3개월 동안 30만 원을 받게 되는데 6월에 2만 원, 7월에 3만 원, 8월에 1만 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귀걸이 통계

8000가구로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고령·저소득층 가구 비중이 늘었는데도 통계청이 지난해 통계와 단순 비교해 발표한 것이 문제 삼았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 입장에선 변화된 데이터 설명 없이 결과만 발표해 국민들에게 왜곡된 이미지를 제공한 책임을 물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조급증을 엿볼 수 있는 인사 조치라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선형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220-0541 (FAX 222-0195)
문 화 부	220-0661	220-0652	220-0551
경 처 부	220-0632	220-0692	(FAX 222-0195)
정 제 부	220-0663	220-0693	(FAX 222-0195)
예 향 부	220-0664	220-0697	220-0693
사 회 부	220-0664	220-0697	220-0697
사 진 부	220-0664	220-0697	220-0697
체 육 부	220-0642	220-0697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